

#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함 연 자

부산경상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Women's Classic Tailored Suits in Modern Fashion**

Youn-Ja Ham

Assistant Professor, Dept. Fashion Design, Busan Gyeongsang College  
(2003. 6. 5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women's classic tailored suits surviving, despite current millennial impulses tend toward disintegration in style. Through documentary study, the reason which women had chosen the mannish tailored suits instead of sumptuous dresses in the 20th century beginnings is considered carefully. Also, examining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women's classic suits makes it possible to infe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m.

According to study, women had began to wear tailored suits acquiring physical comfort and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the early stage, women imitated men's tailored suits in order to show seriousness, intelligent, capability for social success.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advance of women's social position women modified it to suits themselves to present intrinsic femininity as well as masculine values. By staying the basic form, classic tailored suits have undergone constant internal changes in relation to sexuality. The aesthetic properties of women's classic tailored suits can be inferred as moderation, dualism, and versatility.

In conclusion, the credibility with own authority and the evolutionary character inhering in the classic tailored suits could explain the continuity of them.

Key words: Classic tailored suits(클래식 테일러드 수트), Moderation(절제성), Dualism(양성성),  
Versatility(다목적성)

## I. 서론

최근 새 천년의 총동은 사회 문화적인 여러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패션에서도 스타일상의 해체와 융합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 새로움을 위하여 혼성모방을 시도하며 기존의 공식들, 지배의 원리를 깨뜨리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패션의 고전은 '결코 유행이 지나버리는 일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새롭게 변모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함으로써 '유기적인 전통'으로 나타나 시대를 초월하는 중요성을 대변하고 신뢰감을 준다.<sup>2)</sup> 앤 홀랜더가 말한 것처럼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외관상 본질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내적 변화를 진행하면서 시각적 강조점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성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규범을 고수하는 모습은 모든 맥락에서 극단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현재의 사조에 위배되는 듯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니퍼 크레이그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남성은 19세기 빅토리아 왕조시대의 에티켓, 젠더 관계, 성적 매력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패션에서 배제되었고 이들 사상은 젠더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을 가져와 남성과 여성에게 고유한 역할과 위상을 안겨주게 되었다. 의복코드의 끊임없는 재창조는 바로 성적 구분에 대한 이 명령의 지표이다. 이 과정에서 패셔너블한 젠더의 역할은 점차 여성에게 할당되었다.<sup>4)</sup> 여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고 외적 형식의 변화가 거의 없는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를 변함 없이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여성의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성을 갖는 근원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형태를 변함 없이 유지하면서 변덕스러운 여성을 만족시키며 현대 여성의 기본적 복식으로 자리잡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따라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학적 근원을 살펴보고자 여성

들이 남성복의 영향을 받은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남성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여성에게 맞도록 수정하여 '클래식'으로 발전시키는 변화 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클래식 수트에 내재된 역동성을 확인하고,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적 특성을 추론하고자 하며,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하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 2002년까지 Collection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 현재의 감각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개념

클래식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전에서 '최고 수준의', '전통적인', '고대 그리스·로마의'란 뜻으로 나타나 있다<sup>5)6)7)</sup>. 타타르키비츠에 의하면, 클래식의 의미는 로마시대 이후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시대 '고전적'이란 어떠한 성격 규정이기보다는 전적으로 판단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최고 등급을 의미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러 고대인들에 의한 작품들은 이미 전통으로 화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고전적 미의 발견자인 빈켈만 이후 '고상한 단순성과 고요한 장엄함' 같은 특성을 지닌 작가와 예술가도 '고전적'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고전적이라는 의미는 예술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탁월한', '고대적인', '고대 그리스 로마풍의 모범을 본 딴', '규범적인', '표준적인', '조화와 절도, 균형, 고요함과 같은 성질을 지닌' 등 다양한 의미가 축적되었다. 이 중 예술과 문학 바깥에서 자주 쓰이는 의미는 '이미 확립된, 표준적인, 규범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삼는' 등과 같은 뜻이다.<sup>8)</sup> 특히, 패션

에 있어서 '고전적'이란 전통적인 스타일로서 항상 유행에 뒤지지 않는 것<sup>9)</sup>으로 비록 문학의 고전을 이야기할 때처럼 뛰어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간적 지속성을 통해 '표준적인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클래식 스타일상 특징은 형식적이며, 정제되고 절제된 특징을 나타내며, 단순성과 조화를 통하여 우아함을 표현한다.<sup>10)</sup>

테일러드 수트는 전통적 스타일의 남성복과 같이 만든 여성용 수트<sup>11)</sup>로 크게 상의와 하의로 구분된다.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의는 테일러드 재킷과 블라우스, 하의는 스커트 또는 팬츠가 입혀지는데 재킷은 수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테일러드 재킷은 여밈에 따라 싱글브레스티드(Single-breasted)와 더블브레스티드(Double-breasted)로 나누어지며 칼라는 테일러 칼라로 하고 포켓(Pocket), 트임(Vent), 단추 등의 디테일을 가진다.<sup>12)</sup> 상의와 하의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어울리는' 혹은 '같은 직물로 만들어진'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하 같은 직물이 아닌 경우에도 수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sup>13)</sup>, 반드시 같은 직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어울리는' 조합이면 수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여자용의 수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분화하고 있지만 전통적 남성복 형태의 테일러드 수트는 1920년대 여성복에 적용된 이래 현재까지 전체적인 형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클래식 수트라 할 수 있다.

## 2.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출현 배경

1893년 프랜시스 하퍼(Frances E. Harper)가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다"고 선언한 것처럼, 1890년과 1920년 사이에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역할을 추구하게 되었다.<sup>14)</sup> 19세기를 거치면서 여성은 참정권 획득과 남녀평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교육을 받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신여성도 등장하였다. 1890년대 여성들이 새로 쟁취한 독립성은 의상스타일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착용해왔던 장식적인

드레스 대신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유한 여성들도 승마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나 여행을 위한 경우를 위하여 활동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필요로 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은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 이전의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는 의생활에 반영되어 여성들이 남성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의 확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추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페미니즘 운동

페미니즘은 남성 주도 사회가 형성해온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특성을 재 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sup>16)</sup> 페미니즘의 태동은 20세기 이전으로 보이나 이것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초창기 페미니즘은 계몽주의와 자유평등 사상에 입각해 남녀 평등 즉, 남녀 동질성을 주장하며 여성의 참정권, 경제권, 사회적 지위 등 여성의 외부 환경 개선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였다.<sup>17)</sup>

패션에서도 19세기의 코르셋과 과다하게 장식된 복식이 상징하는 남녀 불평등과 성적 억압에 대하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향상을 위한 움직임으로, 우선 의상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의상 개혁 운동은 처음에는 남성에 대한 예속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불편한 여성복식에 기능성을 도입한 복식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성복식의 모방으로 이어졌다. 1850년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 부인은 크리놀린 스커트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부풀어 오른 속옷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터키 풍의 풍성한 바지형태인 블루머팬츠를 소개하였다. 당시 블루머팬츠는 별 유행을 끌지 못하고 사라졌으나 여성의 속박을 의미하는 남성적 환상에 근거한 비합리적 의상 대신에 활동성이 고려된 의상을 제시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제창하려고 했던 의의를 지닌다.

1890년대에 이르러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안하고 수년간 혹은 일생 동안 독립적인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문직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수동성과 가정적 속성에 대한 전통을 거부하고 가정 밖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출하였으며, 의상 스타일에서도 신선하고 발랄한 깃손 스타일의 옷을 착용하였다.<sup>18)</sup> 이들이 착용한 깃손 스타일의 테일러드 셔츠와 스커트는 바로 여성들로 하여금 빅토리아 시대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는 변화를 집약하고 있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은 노동 조합, 여성 클럽, 사회 복지관 등 여성을 위한 새로운 공적 영역을 넓혀 갔으며, 성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분리 영역으로 차별하였던 오랜 빅토리아 시대의 규범에 저항하였다. 여성들이 점차 공적 공간에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역할을 분리하여 이루는 공적 영역에서 성의 혼란과 성차별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당한 의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성의 외모는 이제 깃손 스타일의 미혼 여성의 시한부적 형태에서 더 이상 페티코트를 받쳐입거나 코르셋으로 몸을 죄지 않고 한층 더 간편한 실루엣의 형태로 바뀌었다.<sup>19)</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했던 페미니즘 운동은 가부장제와 수동적 여성성을 상징하는 드레스 대신 간편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추구하여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능동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배경으로 여성의 의상 개혁이 일어났고, 남성적 경향의 단순한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의 해방을 상징하는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 2)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산업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은 복식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자 의상의 간소화, 또는 남장화라는 대담한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남성복 형태의 테일러 칼라의 재킷과 스커트가 분리된 활동적인 투피스 수트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남성화를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실용적이고 간편한 양식을 취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여

성의 모습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sup>20)</sup>

1880년대에 영국의 디자이너 레드펀(Redfern)에 의해 고안되어 유행하기 시작했던 테일러드 수트는 드레스보다 기능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 수의 증가와 함께 인기를 더해 가게 되었는데, 목 주위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레이스가 달린 여러 가지 형태의 블라우스와 함께 착용되어 여성적인 면을 표현하였다.<sup>21)</sup>

1900년대에는 여성 근로자가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부르주아계급의 여성들은 가정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평범한 가정생활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기를 원했다. 아직까지 부르주아계급의 여성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베이베시터와 가정교사, 회사 사무원 등 서비스산업이 현저하게 발전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르주아 여성의 사회 활동은 복장에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어 섬세하고 복잡한 디자인의 의상은 살롱에서 차를 마시거나 파티용으로 여겨졌으며, 근무복으로는 활동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입게되었다.<sup>22)</sup>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라는 전쟁에 의해 야기된 사회 변화는 많은 여성들이 의지에 상관없이 남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했고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켰다. 사회에서 아직 여성의 취직 기회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는 전쟁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sup>23)</sup> 전쟁 후에도 노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더 이상 사적인 공간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고 외부세계로 눈을 돌리고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인 독립이었다.<sup>24)</sup>

이러한 변화는 패션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는 크고 빨랐으며 혁명적이었다.



<그림 1>  
단순하고 부드러운 실루엣의 테일러드 수트, 191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전쟁 중의 제복 착용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의상 스타일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은 사회 변화와 생활의 빠른 속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상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가졌던 기존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하며 새로운 접근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sup>25)</sup> 단순하고 부드러운 라인의 테일러드 수트는 1910년대 급격히 확산되어 상업과 사무직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의 근무복이 되었으며, 어느 누구도 부드럽고 속박이 많은 드레스는 원하지 않게 되었다.<sup>2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하고 합리적인 의상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상의와 하의로 분리되는 테일러드 수트는 원피스 드레스보다 착용이 편리하고 기능적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 3)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19세기말 산업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대와 생활 영역의 확대는 생활수준과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 문화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여가를 이용해 사이클, 수영, 펜싱, 골프, 요트 등의 스포츠를 즐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운동경기가 일반인에게 보급되지 않고 상류사회에 속했으나 점차 일반인에게도 보급되기에 이르렀다.<sup>27)</sup> 특히, 사이클링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거 추장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1850년대 블루머팬츠가 대안으로서 다시 착용되었다. 언론과 학교에서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은 기능적인 이유로 블루머팬츠를 계속 착용하였다.

스포츠의 보급은 현대화되어 가는 생활에 능동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스포츠에 대한 열광은 일반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의복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테일러드 수트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성들의 스포츠웨어는 대부분 홈스핀이나 트위드 같은 무거운 직물과 어두운 색상으로 만들어졌다.<sup>28)</sup> 18세기 후반 남성들이 시골 생활의 레저와 스포츠의 간접적 분위기를 내포하기 위하여 자연과 시적 조화를 이루는 무거운 직물과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실루엣을 추구하였듯이<sup>29)</sup> 여성들은 의복에 있어서 정교함과 화려함을 포기하고 소박함과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자연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 여성의 의복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능성을 특징으로 특별히 여성성을 부각하지 않게 되었다.

## II.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변천에 관한 사적 고찰

여성의 테일러드 수트는 1920년대 남성복을 모방한 재킷과 짧은 스커트의 조합으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이래 그 기본적 형태의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끊임없는 변화를 진행하면서 시대에 맞게 표현상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식적 언어들을 개발함으로써 오늘날 여성의 클래식 패션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sup>30)</sup>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내부 변화는 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성(性)성과 관계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의 페미니즘 운동,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여성해방과 활동성 추구를 위하여 여성성을 거부하고, 남성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변화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했는지 성적 의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대 구분은 현대적 모습의 테일러드 수트가 등장한 1920년대부터 테일러드 수트가 여성복의 클래식으로 정착되는 1950년대까지와 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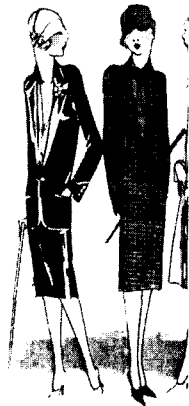


<그림 2> 소박하고 남성적인 경향의 골프복, 1907, Costume & Fashion.

적인 여성의 사회 진출과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  
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로 하였다.

### 1. 1920-50년대

1920년대 이전에도 공적인 영역에서 일상복으로 테일러드 수트가 착용되었지만 현대적 모습의 테일러드 수트가 나타나게 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에 의해 야기된 사회 변화와 성역할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이후이다. 전쟁은 많은 여성들이 의지에 상관없이 남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게 했고 여성에게 적절한 공적 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게 하였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감이 여성들이 고려해야할 요소가 되었다. 사회에서 아직 여성의 취직 기회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노동 인구 가운데 여성이 4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 노동자 가운데 30퍼센트가 사무직과 판매직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여성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인정해 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여성에게 비록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야망의 실현이나 출세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사무실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역할과 비슷하게 분리되고 불평등한 역할을 서로 용인하면서 이루는 공적 영역이었기 때문에 성의 혼란과 성차별화를 통제하기 위해 여성들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사 일을 하기에 적당한 의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sup>31)</sup> 이러한 배경으로 1920년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의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성들



<그림 3> 현대적 모습의 테일러드 수트, 1926,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 여자다움보다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 곡선을 완화시킨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남성들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내면적인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여성들의 운전과 스포츠가 당연한 것이 되면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여성들은 남성적인 테일러드 수트를 스포티하고 편안한 감각으로 광범위하게 착용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승마, 사냥, 그리고 요트타기를 할 때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였고 바지가 스포츠웨어로서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다.<sup>32)</sup>



<그림 4> 캐주얼한 감각으로 착용된 사냥복, 1920s, FASHION.

1929년 뉴욕 주식 시장의 대폭락으로 1920년대 낙관주의가 하나의 환상임이 드러났다. 물가가 하늘로 치솟았으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저임금 뒤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매주 10여 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혹독한 현실은 여성 노동자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취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는 논리로 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였으며 1931년에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기혼 여성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특히 전문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동 시장의 성적 분리 덕분에 공공연한 적대감에 직면하면서 가정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강조가 재연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 참여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남성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다 하더라도 기혼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가정 소비재의 최저 수준을 끌어올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생활 수준을 계속 향상시켰다.<sup>33)</sup> 이와 같이 여성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사회적 압

박이 있었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은 이미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여성은 이전 세대에 이룩한 페미니즘과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성숙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즉, 빅토리아주의의 순종적인 가정성도 아니고, 20년대 소녀같이 생기발랄한 생동감을 가진 말팔량이기도 아닌 성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여성상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성숙하고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모습은 1930년대 새로운 여성상으로 떠올랐다. 반듯하게 펴진 어깨, 잘록한 허리,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세련된 숙녀의 모습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감에 넘치며 남성 같은 모습으로 1930년대 영화 화면을 가득 채운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마들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같은 배우들로 대표된다. 그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넘나드는 새롭고 평범하지 않은 옷차림은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추종되었다.<sup>34)</sup> 특히, 마들린 디트리히는 남성의 클래식 수트를 즐겨 착용한 앤드로지너스한 외모의 여배우로 공적인 자리에서 바지를 입는 것을 감행했던 헐리웃의 첫 주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한 그녀의 모습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성적으로 묘한 매력을 느꼈다. 당시 여성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바지를 입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마들린 디트리히의 팬츠 수트 착용은 팬츠를 착용한 여성도 우아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여성의 바지 착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 여성들이 바지 정장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sup>35)</sup>

30년대 후반까지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의 대표적인 정장으로 일반화되었는데 형태는 전반적인 유행에 따라 홀쭉하고 긴 스타일(slim & long style)로 허리가 타이트하고 길이가 긴 재킷에 벨트를 착용하여 허리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스커트는 종아리 중간 길이의 좁은 형태로 주름이 잡히거나 밑단이 종모양으로 넓어졌다.<sup>36)</sup> 한편, 평상복으로 착용되던 테일러드 수트 보다 남성적인 형태와 소재가 사용된 ‘스포츠 관람복(spectator-sports clothes)’이 착용되기도 하였다. 의복을 때와 장소

에 따라 구별하여 착용하는 것이 더욱 철저해지게 되면서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패션잡지에서 소개하는 스포츠 관람복을 착용하였는데, 테니스와 폴로 경기의 경우 봄·가을에는 트위드와 체크 울의 스커트 수트를 착용하고 여름에는 네이비 블루 재킷과 흰색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여겨졌다.<sup>37)</sup>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사의 물자부족으로 인한 옷감의 제한, 전반적인 빈곤, 그리고 전장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생산현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기인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패션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정부에 의해 장려된 ‘실용적 복장(utility cloth)’이 널리 착용되었다.<sup>38)</sup> 전쟁을 통한 남성화 과정과 군복의 영향으로 남성적인 요소가 의복에 많이 가미되는 과정을 통해 30년대 말의 넓고 남성적인 어깨의 수트가 보다 엄격한 모양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스커트는 활동성을 위하여 무릎을 덮을 정도로 짧아졌다. 스커트 길이가 짧아졌음에도 남성적으로 보이는 넓은 어깨 때문에 경쾌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으며, 높이 올라간 헤어스타일은 어깨를 더욱 넓어 보이게 했다.

전쟁이 끝난 1950년대, 남성이 사회로 복귀함에 따라 여성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었다. ‘여성이 있을 자리는 집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산업계에 투신한 대부분의 여성이 계속 직업을 유지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1920년대 이후 노동력에 편입되었던 기혼 여성은 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동시에 자녀 중심적이며 소비 의식적이고 모든 가사에 책임을 지는 가정 주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후의 사회는 안전과 안정을 강렬하게 추구하였고, 그 결과 사적인 가정성을 강력하게 추구하여 결혼률과 출



<그림 5>  
스포티하고 성숙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수트, 1933,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생활이 급등하였다. 여성들은 전통적인 로맨틱한 환상에 다시금 접어들기를 원했다. 중산층 여성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고 직업적 자질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빠져들어 외과 의사나 똑똑한 상원 의원 대신 5명의 자녀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게 되었다.<sup>39)</sup>



<그림 6> 몸매를 강조한 우아한 스타일의 수트, 1950s, 50s Fashion Style.

이와 같은 전후의 사회적 환경과 때마침 발표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뉴욕은 여성의 패션이 다시금 성적 복종과 자기 도취의 세계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테일러드 수트도 남성적 기표인 각진 어깨패드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둥근 어깨선과 허리가 들어간 재킷과 타이트한 스커트로 여성성을 강조하였다. 1950년대에 이르러 테일러드 수트는 더 이상 남성적인 룩으로 착용되지 않았으며 여성복의 클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남녀의 외모에 의한 차별을 거부하고 동질화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착용되기 시작하였던 남성적 경향의 테일러드 수트는 1930년대 여성성을 회복하여 독립적이지만 성적인 매력 또한 표현이 가능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테일러드 수트는 실용적인 이유로 여성의 일상복으로 널리 확산되었고, 1950년대에는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하는 여성복의 클래식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남성적인 테일러드 팬츠 수트는 여전히 소수에 의해서만 착용되었고 일반적이지 않은 차림새로 여겨졌다.

## 2. 1960-80년대

1950년대 형성된 가정성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참여라는 현실을 축소하여 단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책임의 확대라는 한도 내에서 여성의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훈련과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60년대 들어서 여성들은 노동세계에서 경험한 성차별과 남성의 존경심 결여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용차별, 임금 불평등, 보육 시설과 같은 사회 보장시설의 미비, 법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여성’이라는 정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였으며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모든 걸림돌을 해체하고, 여성의 위력을 과시하고 여성의 성적 가능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였다.<sup>40)</sup> 이러한 움직임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항할 법적 도구로서 시민 권리 법령(Civil Right Act)이 1964년 미국에서 제정되는 등 이미 공식적으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여성성을 거부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sup>41)</sup>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멀쩡한 옷을 폐기 처분하는 현상은 패션이 여성의 감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미적 도구로서의 특성을 잃고 자본주의자와 가부장 사회로부터 유래된 속박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한편,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가 되면서 여성 교육기회의 꾸준한 확대를 배경으로 많은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활발한 사회 진출을 하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생활영역에서 남녀의 성차가 줄어들고 성역할의 유사성이 증가되었다. 여성들은 사회 생활에 적합한 의복으로서 여성성과 패션성을 배제한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같은 표준화된 의복을 원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성복의 남성복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이 패션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나타났는데 1966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남성용 디너 수트의 형식을 채택하여 여성용 스모킹 자켓과 턱시도를 발표했으며 1968년에는 바지를 스포츠웨어가 아닌 정장으로 등장시킨 팬츠 수트를 발표했다. 1971년 랄프 로렌(Ralph Lauren) 또한 여성을 위한 테일러드 수트를 발표하게 되면서<sup>42)</sup> 1970년대 팬츠 수트는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는 바지가 스포츠 웨어가 아닌 정장으로 용인됨으로써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이 성의 구



별에 의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sup>43)</sup>

1973년과 1974년에 걸친 세계경제위기는 여성들의 구직과 직장 내에서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여성의 외양, 특히 의복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일종의 평등의 상징으로 더욱 남성적인 의복을 채택하여 여성패션은 남성성의 기표인 각진 어깨가 강조된 자켓·바지·조끼·셔츠의 세트로 된 테일러드 수트와 서류가방, 심지어는 중절모를 모방한 모자까지 갖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sup>44)</sup> “Dress for Success”라고 불리는 남성적인 형태의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수트 그 자체의 의미로 표현함으로써<sup>45)</sup> 법률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직장에서의 성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즉, 여성들은 표준화된 복식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제거하고 자아 표현을 통제함으로써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남성적인 영역인 직장에서 권위와 존경을 얻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림 7>  
남녀동질성을 추구한 테일러드 수트, 1967, S. Laurent.



<그림 8>  
표준화된 직장여성의 수트, 1970s Decade of Beauty.

1980년대에 들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존재는 거의 평범한 것이 되었으며, 여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사내 문화는 회사들이 필요 없는 성차별 소송 쟁의를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변화하였고, 성희롱 교육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시대에 뒤진 전통적인 지도자들

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새로운 지도자들의 특징이 문화적으로 여성적 기호로 코드화되면서 젠더에 따른 이분법적 이미지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나타났다.<sup>46)</sup> 또한 페미니즘은 기존의 억압된 성성으로 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여성의 인체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게 되었고,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47)</sup>

이러한 변화는 패션에도 반영되어 여성들은 더 이상 사회적 성공을 위해 여성적인 외모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패션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이전 세대들처럼 “Dress for Success”를 추구하며 여성성을 부정하는 남성적인 옷차림을 하는 대신에 여성 중심적 사고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의상에서도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도 패드로 과장한 어깨에 허리가 꼭 맞고 길이가 긴 역삼각형 실루엣의 재킷에 타이트한 짧은 스커트 형태로 인체를 과장하고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층인 여피(yuppie; young urban professional)들은 성공을 통하여 획득한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자 값비싼 디자이너의 수트와 화려한 액세서리를 즐겨 착용하였다.<sup>48)</sup> “Power Suit”라고 일컬어지는 80년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 표현된 이러한 과시적 스타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결코 열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성마저도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1988년 영화 “Working Girl”에 출연한 멜라니 그리피스(Melanie Griffith)가 언급한 것처럼 ‘비즈니스를 위한 머리와 유혹을 위한 몸’<sup>49)</sup>은 파워 우먼의 자신 만만한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그림 9> 권위와 관능성을 동시에 표현한 수트, 1985, D. Karan.

한편, 80년대 성공적인 직업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반영한 의상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의 디자이너 도나 카란(Donna Karan)은 바쁜 직업 여성을 위하여 남성적인 테일러드 재킷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세퍼레이츠(separates)”개념의 조합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남성적인 테일러드 재킷에 여성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디 수트와 그 위에 입는 랩 스커트와 넓은 팬츠의 조합을 통하여 직장에서의 정장차림으로 손색없으면서, 재킷의 교체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차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50)</sup> 또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재질의 사용으로 엄격한 테일러드 의복에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그녀는 권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천부적인 여성성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sup>51)</sup>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를 현대 여성의 삶에 맞게 변화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클래식 테일

러드 수트는 1960-70년대 들어 패션의 가부장제적 속성을 거부하고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과 남녀역할의 유사화를 배경으로 팬츠 수트로 확장되었다. 또한 이미 50년대 여성의 클래식 수트로 정착된 스커트 수트가 좀 더 엄격한 형식으로 여성성과 패션성을 배제하고 권위를 추구하기 위한 표준화된 복식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바탕으로 패션성과 관능성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현대여성의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본 장에서는 여성의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단

<표 1>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변천

구분	사회·문화적 요인	조형적 특징	내적 의미
1920년대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형성 · 스포츠와 운전 확산	·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 무릎 길이의 스커트 · 스포츠를 위한 편안한 감각의 재킷과 바지 착용	· 남성적 가치 추구 · 여성성 거부 · 절제성 · 활동성
1930년대	· 경제불황 · 스포츠에 대한 열기	·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의 역삼각형 실루엣, 종아리 길이의 스커트 · 남성적 형태와 소재의 스포츠 관람복 · Marlene Dietrich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	· 여성성 회복 · 독립적이고 성숙한 여성상 추구 · 복식의 다양화 · 양성성
1940년대	· 제 2차 세계대전 · 생산현장에서 여성들의 노동참여	· 어깨가 강조된 엄격한 형태의 재킷, 무릎 길이의 스커트	· 남성화 · 실용성 · 절제성
1950년대	· 가부장제적 가치관 확산	· 자연스러운 어깨선과 몸매를 강조한 실루엣	· 여성성 추구
1960년대	· 성차별 폐지법 통과 · 성역할의 유사성 증가 · 페미니즘 운동의 부활	· 테일러드 팬츠 수트	· 남녀동질화 · 여성성 거부 · 절제성
1970년대	· 경제위기 · 전문직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 어깨가 강조된 테일러드 재킷, 무릎 길이의 스커트, 단정한 블라우스	· 여성성 통제 · 남성적 가치 추구 · 절제성 · 복식의 표준화
1980년대	·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개념 확산 · 성공한 직업 여성 증가	· 넓은 어깨와 몸매를 과시하는 역삼각형 실루엣, 화려한 액세서리 · 세퍼레이츠	· 관능성 추구 · 패션성 추구 · 양성성 · 다목적성

순히 남성의 수트를 모방한 형태가 아닌 여성들에 맞게 각색이 이루어진 형태로서 다양화되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2002년까지 Collection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여성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의 축적을 통하여 현대적으로 거듭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절제성, 양성성, 다목적성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모하여 현재의 감각으로 유기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을 형태, 디테일, 소재, 색채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조형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 1. 절제성(Moderation)

남성들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18세기 외면적인 화려함을 요구하는 복장을 포기하고 단순한 형태의 수트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패션과 거리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했던 것처럼<sup>52)</sup>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여자복장에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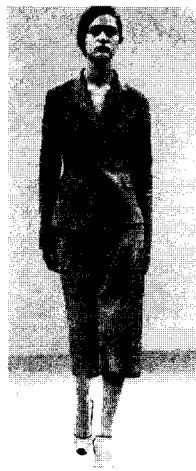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영역에서 불평등한 성차별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성성과 패션성이 절제된 복식으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고 형식미에 근거하는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1920년대 새로운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 형성을 계기로 남녀평등과 해방된 여성의 자의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착용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활발한 사회 진출과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던 1970년대 "Dress for Success"를 통하여 여성성을 통제하고 전통적인 복장에 내재된 남성적 가치로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표준화된 복식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에도 남성들의 회색 플란넬 수트가 남성들에게 유사함과 안전의 상징이 된 것처럼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의 자아표현을 절제하고 공식적인 사회활동에 적합한 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여성의 표준화된 복식 코드로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일상화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최근의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성을 통제하고 남성적인 기표를 과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외적 표현을 추구하는 더욱 절제된 형식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인체의 자연미를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되었으며, 장식의 배제와 단순성을 강조함으로써 좀더 미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지 아르마니, 켈빈 클라인, 질 샌더와 같은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은 과도하게 장식적인 모든 것을 생략하는 단순함과 편안하게 인체를 감싸는 완벽한 재단, 고급스러운 소재, 무채색 또는 중성톤의 단색의 사용을 통하여 품위와 격조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10> 디테일이 배제된 기본적 형태, H. Lang, 2000/01 A/W, Col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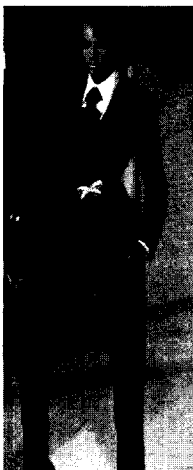
<그림 11> 자연스러운 인체의 표현, J. Sander, 2000/01 S/S, Collections.

## 2. 양성성(Dualism)

현대에 들어서 성역할의 변화,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의 추구, 세계화와 다원주의 시대에 몰입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한 개인에게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는 듀얼리즘(dualism)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면서 대두된 새로운 성개념인 듀얼리즘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반된 양면성을 어느 한 부분도 부정될 수 없는 동등한 하나의 본질로 인정한다. 이러한 개념은 패션에 있어서도 남성복, 또는 여성복의 개념이 제거되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의 복식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53)</sup>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분화 현상보다는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 성에 차용하거나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함으로써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근본적으로 남성복의 형태를 여성이 차용한 것으로서 양

성성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일찍이 1930년대 마들린 디트리히가 공식적인 석상에 남성복 형태의 테일러드 펜츠 수트를 착용하고 참석했을 때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한 양성적인 모습은 묘한 매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그녀의 시도는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들이 성적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남성복을 모방한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함으로써 여성성을 거부하고 테일러드 수트에 내재된 가치로서 자아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후,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 표현된 양성성의 특징은 1980년대에 이르러 여성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전문직 여성의 가시적 증가를 배경으로 나타난 “파워 수트”를 통하여 남성적 권위와 동시에 관능성의 추구로 나타나게 되었다. 남성적인 기표를 의미하는 표준적인 복장으로 착용되던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여성성과 패션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는 듀얼리즘이 부각된 1990년대 이후 좀더 자유롭고 대담한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대담한 융합과 절충으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 내재된 전통적인 양성성의 개념을 해체시키고 있다. 기법을 살펴보면, 엄격한 남성적 형태의 테일러드 재킷에 레이스, 프린트, 자수, 액세서리 등을 전통성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감성으로 절충시키거나 신축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여성적인 몸매를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더 이상 표준적인 복장이 아닌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2> 남성성과 여성성의 절충,  
Dolce & Gabbana,  
2001 S/S,  
Collections.



<그림 13> 몸매를 강조한 화려한 프린트의 수트,  
EXTE, 2001 S/S,  
Collections.

## 3. 다목적성(Versatility)

최근의 지배적인 양식은 탈중심화 현상의 영향으로 인한 확고한 경계의 해체, 이성과 감성이라는 양극화의 대립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융합, 해체의 국면<sup>54)</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혼재 양상은 사회 다변화와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문화장르간의 융합으

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발견된다. 이는 생활 수준 향상과 여가생활의 확대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패션과 자동차, 음식, 주거생활, 레저 및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필수적인 도구인 자동차는 전통적인 승용차의 기능과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복합차량(Multi Performance)이 최근 부각되고 있으며, 음악의 경우도 클래식과 팝의 절충이 이루어진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증가추세에 있다. 패션에서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기준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성이 강조된 스타일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sup>55)</sup>,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도 정장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적으로 착용이 가능한 절충적 스타일로 표현되고 있다. 즉,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스포츠웨어와 레저문화의 확대에 의한 캐주얼화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에도 반영되어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가미된 착장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가지는 딱딱한 정장의



<그림 14> 박스 실루엣의 나일론 수트, Miu Miu, 2001 S/S, Collections.



<그림 15> 캐주얼 감성으로 착용된 데님 소재의 수트, J. Rocha, 1998/99 S/S, Collections.

개념은 20세기 후반기에 도나 카란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유연하고 신축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엄격한 테일러드 수트에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하였고, '세퍼레이츠(separates)' 개념의 도입으로 직장에서의 정장으로 뿐 아니라 퇴근 후의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는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욕구를 최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구분	절제성	양성성	다목적성
미적가치	· 신뢰성 · 실용성	· 자유로운 감성 · 섹슈얼리티 표현 · 패션과의 융합	· 일상성 · 비격식성
역사적 배경	· 1920년대 매니쉬감각의 수트 · 1960년대 팬츠 수트 · 1970년대 "Dress for Success"	· 1930년대 마들린 디트리히의 테일러드 팬츠 수트 · 1980년대 "Power Suit"	· 1980년대 D. Karan의 "Separates"
사회·문화적 요인	· 여성의 사회활동 일상화	· Dualism 대두	· 사회전반의 Fusion 현상
조형성	실루엣	편안하게 인체를 감싸는 H실루엣	박스 실루엣, 아우어클래스 실루엣
	소재	캐시미어, 울, 개버딘	울, 스트레치성 소재, 벨벳, 가죽, 레이스, 광택이 있는 소재
	색채	무채색, 중성색	어두운 색, 흰색
	장식	장식의 배제	프린트, 자수, 액세서리
대표적 디자이너	· H. Lang · C. Klein · G. Armani · J. Sander	· Dolce & Gabbana · EXTE · Versace	· Miu Miu · Prada · J. Rocha

대한 충족시키고자 했다. 그녀가 제시한 착장법은 현대 여성의 삶에 적합한 기능성과 다목적성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더욱 편안한 일상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재 면에서 데님이나 나일론의 사용으로 활동상의 편안함과 쾌적성이 상승되었고, 형태에 있어서도 캐주얼한 감성의 편안한 어깨선과 디테일의 사용과 스포츠웨어 스타일의 조합으로 경쾌한 느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비격식적인 개념이 절충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전통적인 정장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하게 받아들여지고 일상적인 착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인 여러 현상뿐 아니라 패션에서도 스타일상의 해체와 절충의 경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서도 여전히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변천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 앤 홀랜더가 언급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외관상 본질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초기에 여성들이 장식적인 드레스 대신 남성적인 경향의 테일러드 수트를 착용하게 된 계기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스포츠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추구에 있었음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여성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관련 깊다. 1920년대 현대적인 모습의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등장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여성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재된 성적 의미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초기에 남녀 평등과 활동상의 기능성을 추구하면서 여성성을

거부하고 남성적 가치가 내재된 남성복의 모방 형태로서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는 20세기 후반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여성성 뿐 아니라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도 가능한 현대 여성의 삶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절제성, 양성성, 그리고 다목적성은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된 가치를 함축하는 미적 특성으로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서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허용하는 이러한 다양성은 쉽게 시대에 뒤지지 않는 기본형과 재빨리 시대에 맞출 수 있는 사소한 변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가 '시대를 초월하여' 여성의 중요한 의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Ⅱ). 복식, 38, p. 369.
- 2) Ingrid Loschek 외. 황현숙 역 (2001). 패션의 클래식. 예경, p.11.
- 3) Anne Hollander (1995). *Sex and Suits*. New York: Kodansha Globe Book, pp. 3-10.
- 4) Jennifer Craik (1995).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p. 176.
- 5) American Heritage Dictionary(4th edition). from <http://www.bartleby.com>.
- 6) Cambridge dictionary. from <http://dictionary.cambridge.org>.
- 7) 시사엘리트영어사전 (2000). 시사영어사.
- 8) W. 타타르키비츠. 이용대 역 (1998).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pp. 207-216.
- 9) Cambridge Dictionary(2003). from <http://dictionary.cambridge.org>.
- 10) American Heritage Dictionary(4th edition). from <http://www.bartleby.com>.
- 11)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1999). 패션큰사전. 교문사, p. 620.
- 12) 신명진 (1998). 남성수트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13) 이미숙 (1999). 샤넬 슈트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8, p. 200.
- 14) Sara M. Evans. 조지형 역 (1998).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228.
- 15) James Laver (1995).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and Hudson, p. 221.
- 16) Maggie Hum. 심정순 외 역 (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도서출판 삼신각, p. 316.
- 17) 채수진 (1998).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6-7.
- 18) Sara M. Evans (1998). 앞의 책. p. 231.
- 19) Sara M. Evans (1998). 위의 책, pp. 258-259.
- 20) 정홍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제 6개정판). 교문사, pp. 331-332.
- 21) 정홍숙 (2000). 앞의 책. p. 347.
- 22) 이경희 (2001). 20세기의 모드. 교학 연구사, p. 42.
- 23) 허준 (1995). 파리모드 200년. 유럽문화사, p. 140.
- 24) 양유미 (2002). 샤넬의 작품속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성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6.
- 25) 정홍숙. 앞의 책. pp. 365-366.
- 26) 이경희. 앞의 책. p. 64.
- 27) 정수현 (2000). 20세기 여성 슈트의 변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1.
- 28) James Laver (1995). 앞의 책, pp. 208-209.
- 29) Anne Hollander (1995). 앞의 책, pp. 79-84.
- 30) Anne Hollander (1995). 앞의 책, p. 149.
- 31) Sara M. Evans (1998). 앞의 책, pp. 288-290.
- 32) 정홍숙 (2000). 앞의 책, p. 369.
- 33) Sara M. Evens (1998). 앞의 책, pp. 314-318.
- 34)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New York : Prestel, p. 32.
- 35) Ingrid Loschek (2001). 앞의 책. p. 24.
- 36) Sebastian Fishenich 외 (2000). *A History of Fashion*. Germany: Konemann, p. 35.
- 37) Maria Costantino (1994). *Fashions of a decade-the 1930s*. London: Batsford, p. 52.
- 38) Ingrid Loschek. 이재원 역 (2002). 여성들은 다시 가슴을 높이기 시작했다. 한길아트, p. 233.
- 39) Sara M. Evans (1998). 앞의 책, pp. 350-366.
- 40) Sara M. Evans (1998). 위의 책, pp. 394-432.
- 41) Anne Hollander (1995). 앞의 책, pp. 168-170.
- 42) James Laver. 앞의 책, p. 269
- 43) Sebastian Fishenich 외 (2000). 앞의 책, pp. 72-78.
- 44)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 페미니즘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9.
- 45) Anne Hollander (1995). 앞의 책. p. 170.
- 46) Sara M. Evans (1998). 앞의 책. pp. 468-481.
- 47) 채수진 (1998). 앞의 책. p. 48.
- 48) David Bond. 정현숙 역 (1992). 20세기 패션. 경춘사, p. 273.
- 49) Gerda Buxbaum. 앞의 책. p. 135.
- 50) 손보경 (1996).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37-38.
- 51) Gerda Buxbaum (1999). 앞의 책. p. 135.
- 52) Anne Hollander. 앞의 책, pp. 79-84.
- 53) 채수진 (1998). 앞의 책, pp. 50-51.
- 54) 김민자. 앞의 책. p. 391.
- 55) 이은지 (2003). 패션의 Fusion 현상. 삼성디자인넷.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